

마사회가 선정한 2018년 한국경마 10대 뉴스

트리플나인의 독주... '말 복지'도 화두로

올 한해 한국 경마를 돌아보면 서울 경주마들의 약진, 트리플나인의 신기록 수립, 국제대회 입상 소식 등 어느 때보다도 이슈가 넘쳤다. 한국마사회가 선정한 2018년 한국경마 10대 뉴스를 알아본다.

1 국산마 승률·입상률·상금 수득 비중 전년 대비 상승

2018년 산지 통합경주에서의 성적을 분석해보면 국산마의 성장세가 무섭다. 5위내 입상률이 전년 47%에서 60%로 상승했다. 서울 1등급 경주를 제외하면 산지 통합경주 입상률은 외산마와 대등했고, 부경에서는 우위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산마의 상금 수득 비중도 전년 대비 2.8%p가 증가한 75.6%다.

2 렛츠런파크 서울-부경 팽팽한 접전...경마장 간 상향평준화

한국에서 더러브렛 경주를 시행하는 두 경마장 렛츠런파크 서울과 부경의 라이벌 관계는 늘 경마팬들의 관심사다. 서울과 부경의 경주마들이 맞붙는 통합 경주에서 그동안 부경이 강세였으나, 올해는 서울이 팔목 할만한 약진을 보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12개의 통합경주에서 6 대 6으로 막상막하였으나, 시리즈 경주도 각각 3분씩 최우수마를 배출했다.

3 6년 만에 바뀐 리딩사이어...엑톤파크, 씨수말 순위 1위



1 트리플나인은 12월9일 열린 그랑프리 경주에서 우승했다. 2 5월13일 열린 ARF(아시아경마연맹)기념경주 시상식에 참석한 한국마사회 김낙순 마사회장(왼쪽)과 윈프리트 아시아경마연맹 회장. 3 렛츠런파크 부경의 투데이(12번마)는 지난 7월22일 싱가포르 KRA 트로피 경주에서 3위에 입상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2012년부터 6년 연속 씨수말 순위 1위를 지켰던 메니피의 아성이 무너졌다. 씨수말 순위는 자마들의 수득액으로 정해지는데, 올해 엑톤파크가 자마들의 활약으로 약 66억 원을 수득하며 2위 메니피와 약 9억 원의 차이로 1위로 올라섰다.

4 트리플나인의 기록 행진...연말 GI 경주 휩쓸다

트리플나인은 올해 6세의 고령임에도 대통령배 4연패라는 신기록 수립과 그랑프리 우승으로 전설적인 존재가 됐다. 특히 대통령배, 그랑프리 두 경주에서 수득한 상금만 9억1200만 원으로 부마 엑톤파크를 씨수말 왕좌에 앉힌 일등공신이다.

5 투데이, 싱가포르 원정 사상 처음으로 입상

올해는 한국 경주마들의 국제대회 입상 소식으로 뜨거웠다. 부경의 투데이는 지난 싱가포르 원정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인 3위를 달성하며 처음으로 입상에 성공했다. 투데이의 이번 활약 전까지는 한국 경주마의 싱가포르 원정 최고 기록이 6위에 불과했다.

6 케이닉스 선발마, 미국 브리더스컵 2위

한국마사회가 해외종축사업을 통해 선발해 미국 무대에 진출시킨 닉스고가 미국



2 5월13일 열린 ARF(아시아경마연맹)기념경주 시상식에 참석한 한국마사회 김낙순 마사회장(왼쪽)과 윈프리트 아시아경마연맹 회장. 3 렛츠런파크 부경의 투데이(12번마)는 지난 7월22일 싱가포르 KRA 트로피 경주에서 3위에 입상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GI 경주에서 한국 경주마 최초로 우승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경마대회 브리더스컵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며, 내년 3세 시즌 센터커터비 출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7 레이스 레이팅 상승...경주마 능력·수준 높아져

국제 레이스 레이팅은 경주의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 대항경주에서 1~4위 입상마의 연중 최고 레이팅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올해는 22개의 대항경주 중 독점배를 제외하고 전 경주 레이스 레이팅이 증가했다. 이는 경주마의 능력과 경주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아시아경마회의 개최 등 세계 경마계 인사 방한

올해 5월 경마계의 APEC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경마회의(ARC)를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세계 거물급 경마계 인사들이 한국을 찾았다. 아시아경마연맹 윈프리트 회장, 홍콩자키클럽 안토니 초 회장과 싱가포르 터프 클럽 송제밍 최고운영책임자 등이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을 만나 지속적인 교류방안을 논의했다.

9 경마계에 동물보호 열풍...말복지 증진 가이드북 발간

한국마사회는 지난 6월 '말복지증진 가이드북(1):말도 사람과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발간했다. 동물복지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말복지 정책과 제도, 말복지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을 다뤄 말복지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8월과 11월에는 해외 말복지 전문가를 초청해 최초로 말복지 증진 세미나를 개최했다.

10 유엔센터 4곳 신규 개소...경마 이용자 보호 강화

한국마사회는 건전한 레저로서 경마 문화 정착을 위해 1998년부터 도박 중독 상담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중독 예방교육과 심화적인 치유 상담이 가능하며, 올해는 부산 동구, 대구, 일산, 과천점을 새로 개소하며 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정리=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소방관 트라우마 치유하는 '재활·힐링 승마'

우울감 감소...승마 치료 프로 효과

재활·힐링 승마가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나 우울증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가 올해 전국 소방관 1000명에게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재활·힐링 승마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진행한 효과성 연구의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전국 소방관 1000명 중에서도 '고빈도 외상사건 경험' 소방관 73명에게 말을 이용한 특별 승마프로그램(EAL, Equine Assisted Learning)을 9월11일부터 11월21일까지 시행하고, 참여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의 변화 연구를 진행했다. 기존 재활·힐링 승마와 달리 EAL프로그램은 승마장에서 시행하는 학습 활동이 일상생활과 연계되도록 유도한다.

성균관대학교 재활의학과 김연희 교수(삼성서울병원 예방재활센터장, 대한재활승마협회 회장)가 총책임자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PTSD, 우울 증상, 해리 증상(기억 상실), 정서조절 곤란 증상 등 4가지 진단 척도를 사용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73명의 연구대상자 중 출석일수 미달자 등을 제외한 6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프로그램은 6회의 지상활동, 10회의 기승 활동으로 이뤄졌다.

연구에 참여한 63명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군은 사전에 31명에서 16명, 우울 위험군은 24명에서 9명, 해리경험 고위험군은 3명에서 2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진단척도에 의한 점수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는 6.48에서 4.06, 우울감은 14.79에서 8.08, 정서조절곤란척도는 81.37에서 73.89로 감소했다. 다만 해리경험은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7.62에서 5.78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소방관 대상 EAL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PTSD, 우울, 정서조절 곤란 등으로 고통 받는 소방관에게

효과적인 중재 방법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를 이끈 김연희 교수는 "이런 결과는 앞으로 소방관뿐만 아니라 경찰관, 학교폭력 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자들을 EAL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충분하다"라고 평가했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레저 승마인구 확산과 더불어 정서 및 행동문제를 가진 일반인을 위한 EAL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으로 말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재활·힐링 승마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다른 작군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와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트리플나인 최병부 마주 1억 기부

최병부 마주가 오는 30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트리플나인 명의로 1억 원을 기부한다. 트리플나인은 대통령배 4연패와 그랑프리 통합 우승 등 올해 뛰어난 활약으로 한국 경마 역사상 이례적인 기록을 세운 경주마다. 당일 부경 제5경주 종료 직후인 오후 3시10분경에 기부금 전달식이 열리며, 최병부 마주와 정형석 부경본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병부 마주는 트리플나인의 올해 신기록을 기념하고 경마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기부금 외에도 고액 감사 경품으로 무릎담요 1000개를 현장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손흥민의 토트넘, 올버햄턴쯤이야” 85%

축구토토 승무패 38회차 중간 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벌어지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8경기와 이탈리아 프로축구(세리에A) 6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38회차 토트넘(홈)-올버햄턴(원정)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85.42%가 홈팀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양팀의 무승부 예측은 9.17%로 나타났고, 원정팀 올버햄턴의 승리 예측은 5.42%를 기록했다.

리그 2위로 올라서며 상승세를 탄 토트넘이 올버햄턴과 경기를 갖는다. 토트넘은 85.24%로 이번 회차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토토포들의 기대와 같이 최근 해리케인, 모우라, 에릭센 등이 고른 활약을 펼치며 매 경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토트넘은 손흥민까지 매 경기 활약하면서 대량 득점에 성공하고 있다.

반면 올버햄턴은 리그에서 7승5무7패를 기록하며, 리그 10위에 머물러 있다. 올버햄턴은 토트넘과 이번 시즌 한 차례의 맞대결에서 2-3으로 패해 상대전적에서도 뒤쳐져 있다.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이번 시즌 객관적인 전력과 이번 시즌 상대전적에서 앞서고 있는 토트넘이 올버햄턴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어 안방경기를 치르는 맨유는 본머스를 상대로 82.29%의 투표율을 차지해 손쉬운 승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양팀의 무승부 예측은 11.71%를 기록했고, 원정경기를 치르는 본머스의 승리 예측은 6.54%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농구팬 77% “밀워키 승리” 압도적 지지

농구토토 승5패 24회차 중간 집계

국내 농구팬들은 2018~2019시즌 농구토토 승5패 24회차에서 동부지구 2위 밀워키백스의 압도적인 승리를 전망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벌어지는 미국프로농구(NBA) 8경기와 국내남자프로농구(KBL) 6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승5패 24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결과, 밀워키백스가 77.05%로 이번 회차에서 가장 많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양팀의 5점 이내 접전 예상은 14.28%였고, 원정팀 브루클린의 승리 예측은 8.67%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밀워키가 브루클린과 맞대결을 펼친다.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필두로 하는 밀워키

는 이번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동부지구 2위에 올라있다. 시즌 초 연패의 수렁에 빠졌던 브루클린 역시, 최근 중위권까지 순위를 올리며 복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안방에서 14승3패의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밀워키는 현재까지 23승10패를 기록하며 토론토랩터스와 동부지구에서 선두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상대팀인 브루클린 또한 최근 10경기에서 8승을 챙기는 등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즌 초반 연패의 부진에 빠져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이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KBL에서는 서울SK와 맞붙는 KGC인삼공사(71.17%)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양팀의 5점차 승부 예측은 18.07%로 나타났고, 원정경기를 치르는 SK의 승리 예측은 10.76%에 그쳤다.

EPL 4경기·KBL 3경기 대상 ‘토트언더오버’ 45회차 발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의 인기 배당률 게임 ‘토트언더오버’가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45회차의 발매를 시작한다. 이번 45회차는 오는 30일과 31일에 열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경기과 한국남자프로농구(KBL) 3경기를 대상으로 토토포들을 찾아간다. 자세한 일정을 살펴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크리스탈-첼시(4경기), 번리-웨스트햄(5경기), 사우샘프턴-맨체스터시티(6경기), 맨체스터유나이티드-본머스(7경기)전이 선정됐으며, KBL에서는 전자랜드-서울삼성(1경기), 안양KGC-서울SK(2경기), 오리온스-모비스(3경기)전이 뽑혔다. 한편 이번 ‘토트언더오버’ 45회차는 30일 오후 2시50분에 발매가 마감된다.

편집 | 고철일 기자 ice@donga.com